

# 세르비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1. 4.

I. 일반개황 .....	1
II. 경제동향 .....	2
III. 정치·사회동향 .....	8
IV. 국제신인도 .....	11
V. 종합의견 .....	13

## I. 일반개황

면적	78천 km <sup>2</sup>	G D P	423억 달러
인구	7.30 백만명	1 인 당 GDP	5,801달러
정치체제	내각책임제(대통령중심제 가미)	통 화 단 위	Serbian Dinar (RSD)
대외정책	EU 가입 추진	환 율(달러당)	77.73

- 세르비아는 구유고연방 국가 중 하나로 유럽 동남부 발칸반도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1인당 GDP는 5,800달러 수준으로 세계은행 분류 기준으로 중상위권 소득국가에 속함.
- 2006년 6월 몬테네그로의 독립선언으로 세르비아-몬테네그로연방은 세르비아로 계승되었으며, 2008년 2월 코소보가 일방적인 독립을 선언함. 세르비아는 코소보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은 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코소보 독립 선언의 합법성 여부 판단요청을 했으며 2010년 7월 ICJ는 코소보의 독립선언이 국제법상 적법하다는 의견을 표명함.
- 세르비아는 2005년부터 EU 가입을 추진해 왔으나 보스니아 내전의 전쟁범죄자 국제사법재판소 회부와 관련된 세르비아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 코소보를 둘러싼 EU 회원국들과의 이견 등으로 EU 가입이 지연되고 있음.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 □ 경제성장률은 2009년 마이너스에서 2010년 플러스로 반전

- 세르비아는 2000~08년 중 운송, 건설 및 금융 부문의 성장에 힘입어 평균 6.1%의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그러나 2009년에는 2008년 하반기 본격화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수출 감소 및 내수 위축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3.0%를 기록하며 경기가 침체됨.

\* 수출규모 변동추이: 65억 달러('06) → 88억 달러('07) → 110억 달러('08)  
→ 84억 달러('09)

- 2010년에는 수출 및 투자 증가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1.7%를 기록하며 플러스로 반전되었으며 2011년에는 세르비아의 주요 수출대상국인 EU 회원국의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3.0%의 경제성장률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됨.

#### □ 국제 원유 및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물가상승 압박 우려

- 2008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 및 내수위축 등으로 6.9%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안정되었으나 2009년에는 정부의 경기부양책 실시, 국제 원유 및 식료품 가격 상승, 디나르화 가치하락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8.4% 수준으로 상승함.
- 2010년에는 세르비아 정부가 8~10월 세달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총 1.5%포인트 인상함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6.3%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안정되었으나 여전히 통화당국의 목표수준(5.8~6.2%)을 상회하고 있음. 2011년에는 2012년 총선에 앞선 정부의 경기부양책 실시 및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른 고유가 지속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9.7%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sup>e</sup>
경제성장률	5.2	6.9	5.5	-3.0	1.7
재정수지 / GDP	-1.5	-1.9	-2.2	-4.1	-4.5
소비자물가상승률	6.6	10.1	6.9	8.4	6.3

자료: IMF, EIU.

□ 2010년에는 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으나 관리가능한 수준

- 2008년 하반기 본격화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기가 침체되어 세수가 감소하고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2009년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4.1%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확대됨.
- 2009년 1월에 체결한 IMF 차관협정 지원조건 이행을 위해 세르비아 정부는 2009~10년 2년 연속 공공부문 임금을 동결하는 등 긴축재정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0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IMF와 합의한 4.8% 수준보다 낮은 4.5%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나 적자폭은 더욱 확대됨.

## 2. 경제 구조 및 정책

### 가. 구조적 취약성

□ 2008년 하반기 이후 통화가치 약세 지속

- 세르비아의 디나르화는 2006년 이후 미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면서 2007년 12월에는 미달러 대비 디나르화 환율이 53.73을 기록하였으나 2008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개도국에 대한 투자자금 회수 움직임이 나타남에 따라 미달러 대비 디나르화 가치가 약세로 돌아서게 됨. 2008년 연평균 미달러 대비 디나르화 환율은 55.72에서 2009~10년에 각각 67.58, 77.73을 기록하며 약세를 지속하였음.

## □ 무역구조의 취약성 보유

- 2010년 기준 세르비아는 금속(18.3%), 음식료품(14.7%) 및 화학제품(9.6%)이 전체 수출의 42.6%를 차지하는 무역구조를 보유하고 있어 동 품목의 국제가격 변동에 경상수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음. 또 세르비아의 에너지 수입비중은 총수입 대비 약 20%로 다소 높아 에너지 자원 부족으로 인해 경상수지는 만성적인 적자를 나타내고 있음.
- 2010년 말 기준 세르비아의 대 EU 수출은 전체 수출의 57.2%를 차지하였으며 대 EU 수입은 전체의 55.7%를 기록하였음. EU 회원국에 대한 높은 무역의존도로 세르비아경제는 EU 지역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음.

## 나. 성장 잠재력

### □ 2008년 하반기 이후 FDI 유입 둔화

- 세르비아는 2000년 밀로세비치 전 대통령 정권 퇴진 이후 시장경제체제 도입을 위해 국영기업 민영화를 비롯한 각종 개혁을 실시한 결과 2000~08년 중 평균 6.1%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으며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규모도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에는 약 30억 달러의 FDI 유입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됨. 그러나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됨에 따라 2009년에는 FDI 유입규모가 약 19억 달러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2010년에도 전년 수준의 유입액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05~09년 중 세르비아에 대한 최대 투자국가는 오스트리아로서, 5년간 총 26.8억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오스트리아에 이어 그리스(16.2억 달러)와 노르웨이(15.5억 달러)의 순으로 투자가 많은 것으로 집계됨.

## □ 기업경영여건의 평가순위는 다소 낮게 유지

- 매년 국제금융공사(IFC)가 발표하는 기업경영여건 평가에서 세르비아의 순위는 2008~10년 각각 86/178, 90/183, 89/183로 평가되는 등 평가순위가 다소 낮게 유지되고 있음. 2010년 기업경영여건 평가에서 세르비아는 신용획득 부문에서 15/183로 높은 순위를 부여받았으나 사업허가 및 조세납부 부문에서 각각 176/183, 138/183로 평가되며 전체 순위는 다소 낮은 상태임.

## □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Corridor 10) 진행

- 세르비아 정부는 발칸 중심국의 위상 제고 및 경제발전 촉진을 위해 인접 국가(헝가리,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마케도니아 등)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일명 Corridor 10)를 진행하고 있음. 2010년 말 기준 마케도니아와 세르비아 남부도시 레보소예(Levosaje)를 잇는 21km의 도로가 완공되었으며 레보소예 및 세르비아 중서부 도시인 고르니(Gornji)를 연결하는 16km의 도로 건설이 진행중임.
- 세르비아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대규모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도로인프라 개선에 따른 물류운송 비용 감축, 고속도로 이용료 수입 확보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 정책성과

### □ 2009년 3월 IMF와 30억 유로(약 42억 달러) 구제금융 지원협정 체결로 경제위기 진정

- 세르비아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8년 하반기 이후 외국인투자자들의 투자신뢰가 급락하는 등 거시경제 여건이 악화되자, 2009년 3월 IMF와 약 42억 달러, 2년 3개월 만기의 구제금융 지원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동 협정은 2011년 4월 종료 예정임.

\* IMF는 2009년 3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세르비아에 대해 총 15억 유로(약 21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집행한 바 있으며, 3월에 7차 집행분 2.9억 유로(약 4.1억 달러) 집행을 승인하였음.

- IMF 구제금융 지원조건은 세르비아 정부의 재정적자 감축으로 IMF는 세르비아 정부의 재정적자 비중을 2010년 말 GDP 대비 4.8%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권고하였음. 세르비아 정부는 IMF가 권고한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부문 임금 동결, 연금 삭감 등의 긴축재정정책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2010년 말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4.5%를 기록하며 IMF의 권고사항 이행에 성공한 것으로 추정됨.
- 구제금융 협정 체결로 세르비아는 IMF의 재정지출 축소 요구 등에 직면하였으나, 구제금융 지원은 세르비아의 재정건전성 개선 및 단기 유동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됨.

#### □ 2010년 8월 이후 기준금리 인상추세

- 세르비아 통화당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가 급격히 침체되자 2009년 4월 이후 기준금리 인하정책을 펴기 시작하여 2009년 4월부터 2010년 8월까지 16.5%에서 8.0%로 총 8.5%포인트를 인하시킴.
- 그러나 세르비아 정부의 확대통화정책 실시, 세계적인 고유가 지속, 디나르화 가치 하락세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통화당국의 목표수준(5.8~6.2%)을 상회하자 2010년 8월 세르비아 중앙은행은 19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8%에서 8.5%로 0.5%포인트 인상함. 이후 동년 9~10월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씩 인상함에 따라 세르비아의 기준금리는 9.5%를 기록하게 되었으며 2011년 4월까지 유지되고 있음.

### 3. 대외거래

#### □ 2009년 이후 경상수지 적자 축소로 점진적인 개선추세 시현

- 세르비아는 에너지에 대한 대외의존도가 높아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2008년에는 상품수지 적자확대에 따라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이 17.7%를 기록하였음.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따른 EU 회원국의 경기침체로 세르비아의 총수출증가율이 -17.1%를 기록하며 수출이 크게 축소되었으나 수입수요의 급감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5.4%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축소됨.

&lt;표 2&gt;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sup>e</sup>
경 상 수 지	-2,987	-6,334	-8,721	-2,413	-2,144
경상수지 / GDP	-9.6	-15.3	-17.7	-5.4	-5.1
상 품 수 지	-6,228	-9,130	-11,256	-6,663	-5,988
수 출	6,487	8,756	10,957	8,368	9,795
수 입	12,715	17,886	22,213	15,031	15,783
외 환 보 유 액	11,639	13,893	11,123	14,769	12,115
총 외 채 잔 액	19,606	24,144	29,824	29,786	
총외채잔액 / GDP	63.2	60.3	63.6	68.4	
D S R	22.7	24.3	26.3	30.9	

자료: IFS, EIU.

○ 2010년에는 주요 수출대상국인 EU 회원국의 수입수요 증가, 디나르화 평가절하로 인한 수출경쟁력 제고 등으로 수출이 증가하여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5.1%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소폭 축소된 것으로 추정됨.

○ 외환보유액이 2010년 말 기준으로 121억 달러로 월평균 수입의 8.6개월 분에 달해 단기유동성 위험은 관리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분석됨.

##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총수출증가율 둔화

○ 총수출증가율은 2007년에 43.8%를 기록한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주요 수출대상국인 EU 회원국의 경기가 급격히 침체됨에 따라 2008~09년에는 각각 19.5% 및 -17.1%를 기록하며 크게 둔화되었음.

○ 2010년에는 EU 회원국의 경기회복으로 인해 총수출증가율이 2.1%를 기록하며 플러스로 반전되었으나 여전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크게 미달한 것으로 분석됨.



## □ 총외채 누적으로 외채상환 부담 가중

- 총외채규모는 2007~09년 각각 241억 달러, 298억 달러, 298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축소되지 않고 있으며,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 또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 외채상환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또 총외채잔액의 GDP 대비 비중도 2007년 60.3%, 2008년 63.6%, 2009년 68.4%를 기록하며 상승세가 지속됨.
-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2006년 이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2009년에는 31%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Ⅲ. 정치·사회동향

### 1. 정치안정

#### □ 2006년 6월, 몬테네그로 독립 선언

- 1990년대 구소련 붕괴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및 마케도니아가 유고 연방으로부터 독립하였고 신유고 연방으로서의 세르비아-몬테네그로 연방이 2003년 설립됨.
- 세르비아-몬테네그로 연방은 대등한 자치권을 가진 두 개의 연합국가 형태로 출범하였으나 세르비아 국민이 사실상 연방의 주요 직위를 대부분 차지하는 등 두 자치국의 권력에 차등이 생기자 몬테네그로는 2006년 5월 21일 독립여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게 됨. 투표 결과 몬테네그로 국민의 55.4%가 분리독립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몬테네그로 의회는 동년 6월 3일 독립을 선언하였고 세르비아 의회는 6월 15일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였음.

#### □ 2008년 2월, 코소보 독립 선언

- 코소보는 알바니아계 회교도가 밀집해 있는 세르비아 내 자치국이었으나, 2008년 2월 코소보 의회는 세르비아로부터 일방적인 독립을 선언하였음. 세르비아는 코소보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은 채 2008년 8월 코소보 독립 선언의 합법성 여부에 대해 권고 의견을 내려줄 것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요청했으며, 유엔 총회는 이를 승인하였음.

- 2010년 7월 코소보 독립 합법성 판단요청에 대해 ICJ는 코소보의 일방적인 독립선언이 국제법상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코소보는 국제법적으로 독립국 지위를 인정받게 됨.
- 2010년 말 기준으로 코소보의 독립국 지위를 인정하는 국가는 UN 회원국 75개국 및 대만이며 아직도 많은 국가들은 코소보 독립이 세계적 분리주의 운동을 확산시킬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음.

#### □ 집권여당의 국정운영 불안

- 보리스 타디치 대통령은 2004년 6월 민주당(DS) 후보로 대선에 출마하여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2008년 2월에 재선되었으며 친유럽세르비아(SEZ) 연합정부를 구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음. 2008년 5월에 실시된 의회 선거에서 친유럽세르비아 연정은 의회의석 총 250석 중 102석을 차지하였으며 집권여당이 의회의 과반석을 차지하지 못해 여당의 정책 입안 및 의결권한이 제한되어 있음.
- 집권여당에 대한 지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높은 실업률 지속, IMF 구제금융 지원조건 이행을 위한 공공부문 임금 2년(2009~10년) 연속 동결, EU 가입협상 지연 등으로 하락하여 2011년 2월 5일에는 야당인 진보당(SRS)을 중심으로 약 7만 명의 시민들이 반정부 시위를 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음. 반정부 시위대는 세르비아 정부에 대해 공공부문 임금 인상 및 조기 총선을 요구하였음.
- \* 차기 총선은 2012년 5월에 예정되어 있으나 진보당 지지자들은 총선을 2011년 5월로 앞당길 것을 현 정부에 요구하고 있음.

##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 높은 실업률로 사회불안 가능성 상존

- 세르비아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IMF 구제금융 지원조건인 재정건전화를 위한 사회복지 지출 축소, 코소보를 둘러싼 사회불안에 따른 외국인투자 부진 등의 영향으로 15~20% 수준의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고 있음.

\* 실업률 변동추이: 20.9%('06) → 18.1%('07) → 14.0%('08) → 16.6%('09)  
→ 17.2%('10)

- 실업률이 높게 지속됨에 따라 경제개혁 및 정권교체를 요구하는 반정부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으나 아직은 비폭력 시위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불안은 초래되지 않음.

#### □ 2011년 2월 대규모 반정부 시위 발생

-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실업률 상승, 공공부문 임금동결 2년 지속 등에 따른 불만으로 2011년 들어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고 있음. 임금동결에 대한 불만으로 2011년 1월 28일에는 세르비아의 총 1,804개의 학교 중 1,077개의 학교 교직원이 파업을 선언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함.
- 또 2011년 2월 5일에는 야당인 세르비아 진보당(SNS)을 중심으로 한 약 7만명 규모의 반정부 시위대가 수도인 베오그라드에서 집권여당의 퇴진 및 조기총선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임. 현 정부는 EU 가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2008년에 재임되었으나 임기 중 EU 가입 가능성이 불투명하고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의 성과가 미흡하여 국민들의 지지율 하락이 초래됨.

### 3. 국제관계

#### □ EU 가입협상 지연

- 세르비아는 EU 가입을 위한 EU 안정제휴협정(Stablil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SAA) 체결 협상을 2005년 10월부터 시작하였으나, 보스니아 내 전시 전쟁범죄를 자행한 혐의로 구유고전범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former Yugoslavia: ICTY)에 의해 기소된 라트코 므라디치(Ratko Mladic) 군사령관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에 세르비아 정부가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이유로 EU는 세르비아와의 EU가입 협상을 수차례 중단한 바 있음.
- 2009년 12월 세르비아 정부는 EU 집행위원회에 EU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010년 10월 25일 열린 EU 회원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세르비아의 EU

가입 신청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 그러나 동 회의에서 EU 회원국들은 여전히 세르비아의 EU 가입을 위해서는 전쟁범죄자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위한 세르비아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고 밝혔음.

- EU 집행위원회는 세르비아 입법제도의 EU 입법체계와의 부합정도, 세르비아 정부의 경제개혁 프로그램의 성과 등을 조사하여 2011년 중순 세르비아의 EU 가입 진행상황을 발표할 예정임.

#### IV. 국제신인도

##### 1. 외채상환태도

-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연체율은 높은 편
- OECD 회원국 ECA의 대 세르비아 지원현황(OECD, 2010년 9월 기준)
  - 단기: 총 지원잔액 8,750만 달러(연체금액: 40만 달러, 연체율: 0.4%)
  - 중장기: 총 지원잔액 17.4억 달러(연체금액: 13.1억 달러, 연체율: 75.5%)

##### 2. 국제시장평가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수출입은행	D2 (2011.4.)	E (2009.4.)
OECD	6등급 (2011.1.)	6등급 (2010.1.)
S&P	BB- (2005.11.)	B+ (2004.11.)
Moody's	-	-
Fitch	BB- (2005.5.)	-

##### □ 주요 ECA 인수태도

- US Eximbank : 전액 인수 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 독일 Hermes :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 영국 ECGD : 중단기 인수가능

###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89.12.17 (북한과는 1971.9.2)

- 양국간 수교 역사는 짧은 편이며, 2006년에 문화협정이 체결됨.

□ 2010년 양국간 교역규모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미미한 수준

○ 1989년 수교 이후 양국간 교역 규모는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2008년에는 사상 최고치인 5,829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에는 전년 대비 64.4% 하락한 2,074만 달러를 기록하였음. 그러나 2010년에는 양국간 교역규모가 5,791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79.2% 증가하였음.

○ 2010년 말 기준 세르비아는 우리나라의 152위 수출대상국, 98위 수입대상국으로 양국간 교역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해외직접투자 현황(2010년 12월 말 기준): 총 1건, 547만 달러(누계기준)

○ 우리나라는 2010년 최초로 세르비아에 대해 547만 달러를 직접투자한 것으로 집계됨.

<표 4> 한·세르비아 교역 규모

단위: 만 달러

	2007	2008	2009	2010	주요품목
수 출	2,738	5,736	2,028	1,738	수송기계, 산업용전자제품, 산업기계
수 입	160	94	455	4,053	기계요소공구, 고무제품
합 계	2,898	5,830	2,483	5,791	

자료: 한국무역협회.

## V. 종합 의견

-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9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나 2010년 이후 수출과 투자 증가로 경제성장률이 다시 플러스로 반전되어 경기는 회복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세르비아는 2009년 3월 IMF와 약 42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지원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단기 유동성 문제가 해소된 것으로 분석되며 IMF 지원 조건 충족을 위해 긴축재정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2010년 하반기 이후 주요 수출대상국인 EU 회원국의 수입수요 증가, 디너르화 평가절하로 인한 수출경쟁력 제고 등으로 수출이 증가하여 경상수지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외환보유액은 2010년 말 기준으로 월평균 수입의 8.6개월분에 달해 단기유동성 위험은 관리 가능한 것으로 분석됨.
- 2010년 1월 OECD 국가위험 평가전문가회의에서 세르비아의 국가신용등급은 기존의 7등급에서 6등급으로 상향조정되었으며 2011년 1월 OECD 회의에서는 6등급으로 유지됨.
- 다만, 높은 실업률 지속, 공공부문 임금 동결, EU 가입협상 지연 등으로 집권여당인 민주당(DS)에 대한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으며 2011년 2월에는 야당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는 등 집권여당의 권력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세르비아의 경기회복, IMF 지원조건 이행성과, 경상수지 적자 개선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세르비아의 신용도등급은 종전의 E등급에서 한 단계 상향조정된 D2등급으로 부여함.

조사역 최희정 (☎02-3779-5711)  
E-mail: [heej\\_choi@koreaexim.go.kr](mailto:heej_choi@koreaexim.go.kr)